제5절 EPUB DRM 호환 표준기술 전망

현재 일반 콘텐츠를 위한 DRM 호환기술은 다양한 관점에서 개발되고 있으나 전자책 DRM에 관련하여 호환성을 제공하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전자책 도서 시장이 콘텐츠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타 디지털콘텐츠에 비해 늦게 열리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본 과제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표준 기술이 향후 전자책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외 전자책 서비스 사업자들의 표준 DRM에 대한 강력한 요구
- 전자책 DRM에 대한 국내 표준이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제표준이 아직 미정인 상태 이므로, 국내 서비스 업체들이 국내 표준을 당장 적용하기를 주저하고 있음
- Readium 표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Readium LCP 기술은 보안성 취약으로 인해 국내 전자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음
- Readium LCP기술은 단일 표준으로 복수 DRM을 수용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국내에서도 단일 DRM이 표준으로 되는 것 보다는 복수개의 DRM이 공존하되 호환이 될 수 있는 기술이 표준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해외에서도 이미 전자책 DRM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Adobe DRM이 국제 표준을 통해 배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음. Adobe DRM을 포함하여 Sony Marlin DRM